

1998년 시멘트 수급전망 및 대책

김 재 영(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거 시 경 제

'97년 하반기에 들어서 금융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97년 경제성장율은 6.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그리고 '98년 경제성장율은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듯이 다소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98년에는 IMF 경제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정부지출 축소 등을 통하여 거시경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고 경제성장율은 전년대비 2.5%~3%의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98년 상반기에 금융여건이나 외환사정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전망한 것으로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금융여건과 외환사정이 단기간에 안정되

지 않으면 GDP성장율은 '97년대비 2~3%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다.

'98년 건설경기

□ 건축허가

건축허가면적은 '95년 건설경기의 후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7년에는 경기침체로 모든 용도의 건축허가가 감소하였고 특히 상업용, 공업용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의 감소는 더욱더 두드러졌다. 주거용 건축허가는 전년대비 2.0% 감소할 것이며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전년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98년에는 IMF 경제프로그램에 따른 경제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감소폭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성장율의 하락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허가가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의 총 건축허가는 '97년 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용 건축허가는 경기하락에 따른 수요감소와 부

<표-1> 1998년 경제 전망

(단위: %, 억불)

	1997	1998	
		IMF 프로그램 아래에서의 전망	IMF 프로그램 없을 경우의 전망
GDP 성장율	6.0	3.0	4.2
실업률	2.5	3.9	3.2
소비자물가상승율	4.3	5.0	5.1
경상수지	△135	△43	△59

자료: 재정경제원

〈표-2〉 1998년 건축허가 전망

(단위 : 1,000㎡, %)

연도 \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총건축허가
1996	61,063 (-2.5)	52,739 (-3.6)	113,803 (-3.0)
1997F	59,850 (-2.0)	50,364 (-4.5)	110,213 (-3.2)
1998F	55,736 (-6.9)	44,891 (-10.9)	100,628 (-8.7)

주 : 97년 10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것임.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표-3〉 1998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십억원 (1990년 불변가격), %)

연도 \ 구분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총건설투자
1996	18,590 (1.1)	15,384 (-1.0)	24,475 (16.1)	58,450 (6.3)
1997P	17,668 (-5.0)	15,246 (-0.9)	26,600 (8.7)	59,515 (1.8)
1998P	16,855 (-4.6)	13,822 (-9.3)	26,078 (-2.0)	56,754 (-4.6)

주 : 1997년 3/4분기 실적치를 토대로 예측.
자료 : 한국은행.

동산경기 침체로 전년대비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상업용과 공업용은 물론 문교·사회 등 공공건축도 큰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1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투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건축수요 감소, 건축에 따른 대형 국책사업의 투자규모의 조정 및 신규사업의 보류 등으로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뚜렷할 것이다. 주거용 건설투자는 4년 연속 주거용 건축허가의 감소 등과 금융여건의 악화 등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상업용·공업용 건축이 큰폭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토목용 건설투자는 공공투자의 축소조정으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8년도에는 IMF 경제프로그램에 따른 구조조정과 재정투자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토목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98년에는 건설수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당분

간은 발주물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수주액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8년 시멘트 수급전망

시멘트 수급은 건설투자 전망결과와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시멘트 수요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산한 수요와 당해연도에 생산되어진 시멘트 내수량을 토대로 분석하게 된다. 여기에서 내수량은 사용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거나 유통되고 있는 시멘트이고 수요량은 건설공사에 투입된 시멘트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멘트 수급은 수요량과 내수량을 비교 분석하여 파악하게 된다.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한 수급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멘트수요보다 시멘트 내수량이 5% 안팎으로 많을 경우 수급이 안정적이었고 수요와 내수량의 차이가 3% 이하가 되면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었다.

'97년의 경우 시멘트수요는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0.6%의 증가에 그친 5천8백76만7천톤이었고 시멘트 총공급량은 국내에서 6천11만톤이 생산되었고 해외에서 3백2만톤

이 수입되어 6천3백13만톤이었다. 이중 6천2백만톤이 내수로 출하되었고 64만톤이 수출되어 81만7천톤 정도 재고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수요 대 내수의 비율은 5.5% 내수초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 '97년의 시멘트 수급은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98년에는 시멘트수요는 건설투자의 감소로 3.0% 감소한 5천7백2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멘트 공급량은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3백5십만톤 증설로 6천3백61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 수출은 주수출선인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공급과잉으로 전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증설분의 대부분이 국내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출하는 건설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97년도 수준을 밑도는 약 6천만톤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동율이 유지될 경우 약 3백92만톤의 시멘트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입선의 확보를 위하여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시멘트 재고량은 4백만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급분석 결과를 따를 때 '98년 시멘

트 수급은 수요 위축에 따른 공급과잉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전망은 수요자의 재고분이 거의 없고 시멘트 가격 상승율이 물가상승률 수준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낙관적이다. 만약 수요자 재고분이 건설경기 침체로 사용되지 않은 채 대량으로 남아 있거나 시멘트 가격 상승폭이 클 경우 '98년도의 시멘트 내수는 예상치 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재고량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대 책

'98년에는 건설투자의 감소로 시멘트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멘트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멘트의 재고도 '97년의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97년말의 환율 급등의 영향이 '98년에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도 큰폭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멘트 가격의 상승은 시멘트수요를 더욱더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98년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에 볼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크게 겪을 것

<표-4> 1998년 시멘트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수요	총공급			총출하			재고
		계	생산	수입	계	내수	수출	
1996	58,413	60,798	57,260	3,538	60,797	60,013	784	817
1997	58,767 (0.6)	63,130 (3.8)	60,110 (5.0)	3,020 (△14.6)	62,640 (3.0)	62,000 (3.3)	640 (△18.4)	1,307 (60.0)
1998	57,018 (-3.0)	63,610 (0.8)	63,610 (5.8)	-	61,000 (△2.6)	60,000 (△3.2)	1,000 (5.6)	3,917 (203.8)

주 1) 수요는 '97년 건설투자 전망치와 원단위를 이용하여 추정.

2) 내수는 '98년 수급 안정선 5%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보아서 추산한 것임.

자료 :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추정한 것.

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의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시멘트 수급은 국내 부분보다는 수입과 수출 등 해외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환율상승 효과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미리 이를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여력은 커졌으나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도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멘트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 소비를 증가시키는 한편 시멘트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공법 선택에서 시멘트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로공사에서도 시멘트 소비가 많은 공법으로 대처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둘째, 현재 환율상승으로 국내생산 시멘트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높아졌으므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외 건설공사에 국내산 시멘트의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시멘트산업은 수요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경기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건설경기 동향을 감안하여 생산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

시사용어해설

<기후변화협약>

석유·석탄 등 주로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냉매로 쓰이는 CFC 등의 기체는 대기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시키는 온실효과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들어 지구전체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 수면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유엔은 90년부터 기후변화협약제정에 나서 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92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협약은 94년 3월부터 발효됐는데 선진국과 동유럽의 시장경제전환국이 우선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고 점차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